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지형과 전후 극복의식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김성조

한양대학교, 현대시 전공

poemksj@hanmail.net

I. 머리말

II.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출간배경과 그 의의

III. 전쟁체험의 시적수용과 전후극복의 논리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9S1A5B5A07086136).

I. 머리말

김중삼(1921-1984)·김광림(1929-)·전봉건(1928-1988)의 연대시집(連帶詩集)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¹는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특성과 함께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 시인은 모더니즘 시의 미학을 시적 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50년대적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시적 원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들의 문학적 출발시점²인 1950년대는 민족상잔의 전쟁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던 때이다. 해방의 기쁨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1950년대 시적공간에서는 전장(戰場)의 참혹성에 터를 두든, 파괴된 인간 삶의 영역을 형상화하던 전쟁의 모순성이 가장 강력한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시대와 현실, 자아와 세계의 관계성을 직시하면서 인간상실의 폐허를 뛰어넘기 위한 시적극복에 천착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1950년대 모더니즘 시는 당대 한국시의 출발과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사건과 그 위기의식의 터전 위에서 발현되고 있다. 참혹한 전쟁과 전후 폐허의 현실은 시대적/시적 담론을 체감하고 응집할 수 있는

-
- 1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의 연대시집(連帶詩集)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1957년 「자유세계사」에서 출간된다.
 - 2 김중삼은 1953년 『신세계』에 시 「園丁」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등단절차를 밟는다. 김광림은 1948년 『연합신문』에 「문풍지」, 「벽」 등의 시를, 1954년 『전시문학선』에 「장마」, 「내력」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김광림은 “1954년 『군사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장마」라는 작품이 『전시문학선』에 「내력」이란 작품과 함께 수록/발표되었는데, 이때부터 기성대우를 받은 셈이지요.”라고 밝히고 있다(김광림·김중해 대담 「나의 문학, 나의 시작법」, 《현대시》, 1985). 전봉건은 1950년 『문예』지에 시 「원」, 「사월」, 「축도」 등이 추천되어 등단한다.

가장 강렬한 체험구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시의 실험적 탐구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문학에의 열망과 함께 전후극복이라는 명제를 동반하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모더니즘적 탐구의식과 현실 비판적 대응의식이 긴밀하게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1950년대 모더니즘 시에 대한 여러 측면의 논의들³도 대체로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과의 연계성 속에서 다양한 분석적 틀을 확장해오고 있다.

돌아보면, “1950년대 모더니즘의 시작은 1948년 ‘신시론’ 동인”⁴으로부터 출발한다. 김경린, 박인환, 임호권, 김수영, 김병식 등이 주축이 된 ‘신시론’ 동인들은 1949년 4월 사화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하면서 첫출발의 발자취를 드러낸다. 이후 부산 피난지에서 김경린, 박인환, 조향, 김규동, 이봉래, 김차영 등이 모여 ‘후반기’ 동인을 결성하게 된다. 당시 ‘후반기’ 동인들은 한국문단에 모더니즘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환기시키면서 작품 활동의 터전을 확장해간다. 이들의 시적 행보는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위치를 각인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 시사에도 그 족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펼쳐가던 모더니즘 시학은 당시 주류적 행보 못지않게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⁵ 이들의 모더니즘 시작(詩作)이 1930년대 모

3 윤정룡,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이광수,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문혜원, 『한국 전후시의 실존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송기한, 『한국 전후시와 시간의식』(태학사, 1996); 박윤우,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부정성의 형태와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류순태,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한명희,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서정성」, 『한국시학연구』 제16호(2006).

4 우남희, 「1950년대 ‘후반기’ 동인과 『신시학』의 연관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4집(2019), 108쪽.

5 오세영은 ‘후반기’ 동인들이 주장한 문학적 이념이나 작품적 특성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0년대 모더니즘을 되풀이한 정도에 그치는 ‘피상적 모더니즘’이라고

니즘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든가, 전후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나친 기교와 서구 모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이 그 배경에 놓인다.

이러한 비판과 한계성은 당시 모더니즘을 지향하고 탐색하던 1950년대 대다수 시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김종삼·김광림·전봉건 또한 이러한 영향권 속에서 모더니즘을 탐색하고 본격화하고 있다. 세 시인의 모더니즘 시는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발상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을 명징하게 자각하면서 이를 시적 탐구영역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른바 표피적, 모방적 모더니즘에 경도되기보다 1950년대적 상황을 비판적 시각으로 인식하면서 그 모순성을 시적 내면화하고 있다.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다양한 기법을 통한 시적 형상화, 파괴된 생명성의 복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의 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성적 시작이 곧 세 시인으로 하여금 1950년대 대표 모더니즘 시인 군(群)에 속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텍스트로 해서 이들의 초기 모더니즘 시의 특성과 전후극복의 논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세 시인이 전쟁의 폐허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가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1950년대 모더니즘 시가 안고 있는 경험체계와 개별적

평가한다(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20세기 한국시 연구』(새문사, 1991); 홍기삼은 '후반기' 동인이 추구한 시적 실험을 전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이 전후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홍기삼, 「전쟁 그리고 문화의 수면」, 『상황문학론』(동아출판공사, 1974); 김춘수는 '후반기' 동인들의 반 이념적 성격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서구적 경험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김춘수, 『의미와 무의미』(문학과지성사, 1976)).

시의 미학을 당대적 담론과 결부해서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초점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모더니즘 시의 개념에 기대기보다, 세 시인의 작품을 통해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한 지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특별한 관심이나 논의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출간 당시 짧게 소개된 시평⁶을 비롯해서 대단히 소략한 수준의 논의⁷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이 연대시집이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텍스트로 흡수되기보다, 대부분 각각의 초기 혹은 전체 시세계 속에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별적인 작품연보나 시인연보 등에 통과 의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세 시인이 1950년대적 ‘연대의식(連帶意識)’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출간한 시집인 만큼, 하나의 텍스트로 통합해서 논의해야만 함유하고 있는 그만의 특성과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은 전쟁과 분단, 실항 등 한국전쟁의 상흔을 총체적으로 지고 있는 시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체험한 전쟁과 동시대적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연대의식의 강도는 남다른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먼저 이러한 배경을 깊이 숙지하면서 전쟁과 죽음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는 세 시인의 초기 모더니즘 시의 미학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와 세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시의식과 생명지향에 터를 둔 전후 극복의식의 내면화과정이 정립될 것이다. 연구 텍스트는 1957년에 출간한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자유세계사)를 활용할 것이며, 인용 시편도 이 책에 근거할 것임을 밝혀둔다.

6 李活, 「시집詩集 戰爭과 音樂과 希望과」, 《京鄉新聞》, 1957년 7월 17일자.

7 오형엽,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2009); 홍승희, 「김종삼 초기 시의 주제: 타자 관계 양상 연구 -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2호(2018).

Ⅱ.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출간배경과 그 의의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문학적 출발시점인 전쟁기와 전후 폐허의 상황 속에서 쓰여졌고 또 한편의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이른바 시대적·현실적 위기의식을 체감하면서 그 터전 위에서 출간된 시집이다. 따라서 1950년대적 상황을 벗어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만의 특성을 함유하고 있기도 하다. “1950년대 문학과 6·25전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⁸라든가, “50년대 문학은 넓게 말해서 전쟁문학 혹은 전후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⁹ 등의 배경 속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 연대시집의 ‘後記’에는 세 시인이 시집출간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과 또한 그 의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세 시인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後記’의 내용을 발췌/인용해본다.

연대시집(連帶詩集)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엮어내는데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다 제각기 「삶」과 지구(地球)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곁에 살고 있는 이와 서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니는 정당(正堂)한 까닭과 높은 뜻을 우리 세 사람은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저바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나 할까.

혹은 세 사람이 각기 10편씩의 작품을 묶어 한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이름하여 「연대시집」이라 붙이는 사실로써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어느 조그마한 한 부분을 더욱 빛낼 수 있게 노력하는 작업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8 이남호, 「1950년대와 전후세대 시인들의 성격」, 『1950년대의 시인들』, 이남호·송하춘 편(나남, 1994), 12쪽.

9 천이두, 「50년대 문학의 재조명」, 『한국비평문학대계』(동양서적, 1994), 200쪽.

시인이 「시집」이란 것을 조판하고 인쇄하여 발간하는 일은 곧 자신으로 하여금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반사회 속에, 그곳의 통행인 속에 끼이게 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 우리는 지금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나고 있음을 자각하는 일에만 충실할 뿐이다.

-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後記’¹⁰ 중에서

위 내용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후기’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세 시인은 먼저, “연대시집(連帶詩集)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엮어내는데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운을 뚫는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아마도 무슨 결연한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 보면, 보다 무거운 배경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른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다 제각기 「삶」과 지구(地球)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곁에 살고 있는 이와 서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라는 배경이 그것이다. 이어서, “이 이야기가 지니는 정당(正堂)한 까닭과 높은 뜻을 우리 세 사람은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저바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세 시인은 ‘오늘날’의 “「삶」과 지구의 운명”에 대해 ‘연대책임’을 저야 함을 인식하고, 함께 시집을 냈으므로 그러한 “정당한 까닭과 높은 뜻”에 동참하는 한 계기를 삼고자 한다. ‘나’ 혹은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한 주체이면서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지고 가야할 당사자임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세 사람이 각기 10편씩의 작품을 묶어 한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이름하여 「연대시집」이라 붙이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10 김중삼·김광림·전봉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자유세계사, 1957), 110쪽.

이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어느 조그마한 한 부분을 더욱 빛날 수 있게 노력하는 작업” 즉, 시인으로서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과 특권’이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반사회 속에, 그곳의 통행인 속에 끼이게 하는 행위”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이는 보다 직접적, 구체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동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지금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나고 있음을 자각하는 일에만 충실할 뿐이다”에 놓여있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세 구도는 ‘전쟁’의 폐허와 ‘음악’과 ‘희망’의 극복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본문 속에 (戰爭과-김중삼), (音樂과-김광림), (希望과-전봉건)이라고 시집 이름을 셋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의 이름과 하나씩 붙이고 있으나 이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¹¹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쟁’, ‘음악’, ‘희망’은 세 시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된다.

이 시집의 이름 『戰爭과 音樂과 希望과』가 세 사람의 모든 작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독자를 위해서 그 상관(相關)을 일일이 설명할 마당의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다. 다만 지금 「연대책임」을 수행하는 제1보는 시인에게 있어선 그가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니고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신이 가질 때 비로써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을 표기하여 끝머리에 쓰는 이 몇 마디의 맺음으로 삼는다.

一九五七, 四, 四 金宗三. 金光林, 全鳳健

11 김중삼·김광림·전봉건(1957), 앞의 책, 111쪽.

‘후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세 사람의 모든 작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독자를 위해서 그 상관(相關)을 일일이 설명할 마당의 이 자리가 아”님을 명시한다. 각각의 작품의 ‘상관(相關)’을 설명하기보다 세 시인에게 우선적인 것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니고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연대책임’의 ‘제-보’를 수행하는 일이다. 시인으로서의 길 또한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신이 가질 때 비로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연대책임’,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특권’,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는 일” 등이 중심에 놓인다. 여기서 세 시인이 함께 연대(連帶)해서 시집을 출간하는 배경과 그 의의를 짐작해볼 수 있게 된다. 세 시인은 우선 전쟁과 전후 현실을 외면하거나 표피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명징하게 자각하면서 그 책임과 대응의식을 발현하고자 한다. ‘전쟁’, ‘음악’, ‘희망’은 그 상징적 메시지이다. ‘전쟁’의 하강 이미지와 ‘음악’과 ‘희망’의 상승의 기류는 시적극복을 의도해야 할 구체적 방향성이 된다. 보다 내밀한 의미구도는 본문을 개진해가면서 증명해갈 것이다.

Ⅲ. 전쟁체험의 시적수용과 전후 극복의 논리

1. 부정적 현실인식과 세계의 상실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의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세 시인의 첫 시집¹²이 나오기 전 최초로 출간한 시집이다. 연대시집에 실린 ‘각 10편’의

시편들은 등단시기¹³부터 1957년 출간하기까지의 작품들인 만큼 1950년대 적 인식이 강렬하게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시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시인이 함유하고 있는 공통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은 ①195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재개한 1950년대 시인이라는 점, ②세 시인이 모두 모더니즘 시를 쓴다는 점, ③북에서 월남한 '실향민'¹⁴이라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세 시인이 연대시집(連帶詩集)을 출간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시작(詩作)의 출발 시기, 문학적 경향, 개인적 상흔 등은 동시대적 인식, 실험적 탐구의식, 공통의 극복과제 등과 결부되면서 첫 출발의 의의를 환기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향민'의 상처는 세 시인이 공유하는 가장 어두운 체험구도이면서 또한 그 극복과제가 된다. 전쟁과 분단이 민족적 수난의 일환이라면, 실향(失鄉)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지고 가야 할 상흔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대시집에는 실향민의 상처보다 전쟁의 모순성과 폐허의식이 더 큰 무게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당면한 1950년대적 상황이 보다 급박하게 자아와 현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김종삼은 1969년에 첫 시집 『십이음계』(삼애사)를 출간했고, 김광림은 1959년 『상심하는 접목』(백자사)을, 전봉건은 1959년 『사랑을 위한 되풀이』(춘조사)를 첫 시집으로 출간한다.

13 각주2) 참조.

14 김종삼은 황해도 은율 출생으로 평양 광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형 김종문을 따라 도일했다가 1945년 해방 직후 귀국한다. 김광림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 개성 송도중학교, 원산공립중학교, 평양종합대학 등을 거쳐 1948년 12월 4일 한탄강을 넘어 단신 월남한다. 전봉건은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나 평양 숭인중학 졸업, 해방 이듬해 바다를 통해 38선을 넘어 남하한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표상되어 있는 시적 의미구도는 크게 전쟁, 죽음, 극복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전쟁과 관련한 살상과 인간상실, 죽음에 대한 구체적 체감과 비판, 극복의지로서의 생명지향의 열망 등을 함축한다. 따라서 세 시인의 당대적 현실인식과 전후극복의 논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먼저, 이 장에서는 ‘전쟁’에 해당하는 단계 즉, 전쟁의 모순성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현실인식, 세계의 상실을 체감하는 내면의식을 과장을 살펴본다.

廣漠한地帶이다기울기
 시작했다잠시꺼밧했다
 十字型의칼이바로콰혔
 다堅固하고자그마했다
 흰옷포기가포겨놓었다
 돌담이무너졌다다시쌓
 았다쌓았다쌓았다돌각
 담이쌓이고바람이자고
 틈을타凍昏이찾아들었
 다포겨놓이던세번째가
 비었다

- 김중삼, 「돌각담-하나의 前程 備置」 전문

김중삼의 시 「돌각담」은 시인의 말¹⁵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피란길’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상된 작품이다. “걷고 있던 7월 초순경, 지칠대로

15 김중삼, 「피란길」, 『김중삼 전집』(나남, 2005), 305쪽.

지친 끝에 나는 어떤 발이랑에 쓰러지고 말았다. 살고 싶지가 않았다. 얼마나 지났던 것일까. 다시 깨어났을 때는 주위가 캄캄한 深夜였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돌각담」이었다”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다. 전봉건과 이승훈은 한 잡지의 대담에서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¹⁶ 「돌각담」은 김종삼의 대표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체로 부재의식¹⁷에 초점을 두고 함유된 시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 행 “포겨놓이던 세번째가/비었다”에서 ‘비었다’의 공백이 그 특징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굳이 ‘비었다’의 공백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돌각담’을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부재의 요소가 암시되고 있다.

시 「돌각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형식적 특징에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 없는 시행, 연의 부재, 반복적 기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적 특징은 김종삼의 초기 실험적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일정 단서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지 형식적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간극으로서의 긴박하고 절박한 내면심리를 상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폭이 크다. 이른바 형식과 내용이 상호작용하면서 ‘피란길’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廣漠한地帶”은 1950년대적 공간 이미지를 상징화한다. 이러한 공간은 “기울기/시작했다잠시켜밧했다”와 연결되면

-
- 16 전봉건과 이승훈의 대담 내용을 발췌해본다. “이 작품의 현장을 전쟁 속에 두면 작자가 제시하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절망과 막막한 어둠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절망과 죽음 바로 그 속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사랑이랄까 연민의 정이랄까 할 것의 발견과 확인의 경험입니다.” (『현대시학』, 1973.4)
- 17 김종삼의 시 「돌각담」을 ‘부재’와 관련해서 견해를 두고 있는 논의로는, 김영태, 「음악의 배경: 김종삼론」(시문학, 1972.8), 37쪽;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전집』 장석주 편(청하, 1988), 253쪽; 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전집』, 장석주 편(청하, 1988), 261쪽;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김수영·김종삼 시의 시간의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148쪽 등이 있다.

서 불완전한 현실과 부조화의 관계성을 드러낸다. “廣漠한地帶”, “기울기 시작했다”, “돌담이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포겨놓이던세번째가/비었다”는 시 「돌각담」을 구성하는 의미체계이다.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없는 완고한 어둠과 불완전한 절망적 상황이 표상되어 있다.

김중삼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피란길’의 급박함과 막막한 절망의 심연을 ‘돌각담’을 쌓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상징화하고 있다. 김중삼의 부재의식은 유년부재에서부터 현실부재, 미래부재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현재와 미래부재는 대체로 전쟁과 실항의 상처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현실적 빈곤과 병고, 방황과 도피의 여정과 긴밀히 맞물린다. 그의 처녀작인 「돌각담」은 그 시초를 여는, 공백 혹은 부재의 세계를 암시하는 첫 걸음에 해당하는 작품인 셈이다. ‘쌓기’를 반복하지만 결국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부재와 단절의 세계가 곧 김중삼의 1950년대적 현실인식인면서 세계의 상실을 체감하는 구도가 된다.

기다려 달래던 어긋난 位置와
時間은 틀림없이
1950년의 변두리에서

하마 눈먼
季節. 나비의 花粉을 묻힌
손목은 꺾이어 갔다.

薔薇의 눈시울이
가시를 배알은 가장
慘酷 했던 달

六월은
砲彈의 姿勢들로 터져간
내 또래의 젊음들은
「바리게이트」로 넘어져 갔다.
匍匐처럼 느릿한 155마일
休戰線의
겨드랑 쭉발길……

- 김광림, 「다리목」 부분

김광림은 1948년 단신 월남한 후, 1952년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戰場)체험의 참혹성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비롯해서 그의 초기 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950년의 변두리”는 전쟁체험의 시대와 그 공간 이미지를 상징화한다. 이를 배경으로 “어긋난 位置”, “눈먼 계절”, “손목은 꺾이어 갔다”라는 비정상적이고 불구적인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가시를 배알은 가장/慘酷했던 달//六월은” 그 구체적인 배경과 정황을 담고 있다. ‘참혹’과 ‘六월’은 1950년대적 체험현장이면서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환기시키는 배경이 된다.

“1950년의 변두리”에서 촉발된 ‘어긋남’과 ‘꺾임’의 불구적 세계는 “慘酷했던 달//六월”을 거쳐 “砲彈의 姿勢들로 터져간/내 또래의 젊음들은/「바리게이트」로 넘어져 갔다”의 상황으로 확장되어 간다. ‘포탄’은 살상도구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가 인간을 살상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 또래의 젊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탈인간적 살상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 “匍匐처럼 느릿한 155마일/휴전선의/겨드랑 쭉발길…”은 민족상잔의 피 흘림과 그 상흔이다. “분단, 이산, 참전 등 이중 삼중의 아픈 체험”¹⁸을

18 문덕수, 「김광림론: 그의 주지적 방법을 중심으로」, 『金光林詩全集』(바움커뮤니케

하고 있는 김광림에게 “참혹했던 달//六월”은 “155마일/휴전선”으로 결집되면서 극단의 비극성으로 확장되어간다. “1950년의 변두리”, “가장/慘酷했던 달//六월”, “砲彈의 姿勢들로 터져간/내 또래의 젊음들”, “155마일/휴전선”까지의 거리가 곧 김광림이 인식하는 1950년대적 현실이면서 세계의 상실이다.

김광림은 흔히 모더니스트 또는 이미지스트로 불리면서 그만의 시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그의 모더니즘 시의 탐구와 이미지의 활용에 초점을 둔 평가가 될 것이다. 이견청은 김광림의 시세계를 네 단계로 나누면서, 그 첫 단계를 “그가 직접 전투원으로 참전했던 전쟁 체험과 반전의식을 다룬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와 『상심하는 접목』”¹⁹에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서구 모더니즘에 경도되면서 이미지를 통한 명징한 세계를 탐구해 보여준 『심상의 밝은 그림자』(1962)” 등의 단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로 이어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김광림의 모더니즘 시의 출발지점이면서 그 확장의 단계이다. 다시 말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모더니즘 시의 탐구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六月은
연분홍
잠옷 속에 있는 少女의
이마 위에서 푸른
六月은
銃殺되고.

이선, 2010), 20쪽.

19 이견청, 「김광림의 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4집(2003, 12), 333쪽.

새까만 나무 다음에 새까만 나뭇가지는
이어지고,
또 그렇게
이어지는 새까만 가지
마다
떠러져 갔건만,

〈새 집이
무수한
새 알이〉

이러한 地平을
넘어
풀잎처럼 나의 눈시울이
太陽을 느끼면
가슴 속에 彈痕을 밟고
砲煙을 헤치는
움직이는 개미들을 위하여.

- 전봉건, 「개미를 素材로 한 하나의 詩가 쓰여지는 理由」 부분

전봉건은 6·25전쟁 시 중동부 전선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²⁰ 이후, 전쟁체험은 그의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기

20 전봉건은 6·25가 발발하자 월남인인 까닭에 정치보위부의 수색을 받기도 하고, 징집을 피해 진천으로 피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징집되어 참전했다가 중동부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대구, 마산의 육군병원을 거쳐 1951년 봄 통영에서 제대를 한다.

까지 지속적인 시적 탐구주제로 등장한다. “전봉건의 시의 진수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六·二五의 참전체험의 형상화로부터 비롯된다.”²¹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실려 있는 시들은 “一九五五-五六년 사이에”²² 쓴 작품으로 1950년대적 비극성과 비판의식이 강렬하게 물들어 있다. “六月은/銃殺되고”, “彈痕을 밟고/砲煙을 헤치는” 등에서 전쟁의 참상과 비판의식이 포착된다. ‘총살’, ‘탄흔’, ‘포탄’ 등은 ‘괴’의 전쟁을 환기시키는 살상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특히, “연분홍/잠옷 속에 있는 少女의/이마 위에서 푸른/六月은 /銃殺되고”에서 비극성의 강도가 극대화된다. “연분홍/잠옷 속”, “소녀의/이마” 등에서 이미 짐작되었듯이 여기에는 무고한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고한 죽음은 “一九五〇年 六月이/울밑에 射殺된 풀잎과 꽃잎과 함께”(「銀河를 主題로 한〈바리아시옹〉」) 등에서도 나타난다. “一九五〇年 六月”은 ‘울밑’에 핀 ‘풀잎과 꽃잎’까지도 ‘사살’시키는 참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단 인간의 영역뿐 아니라, 자연적 생명성까지도 말살하는 완전 파괴, 완전 어둠의 색채를 띠게 된다.

“새까만 나무 다음에 새까만 나뭇가지는/이어지고/또 그렇게 이어지는/새까만 가지”는 폐허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새까만 나무’, ‘새까만 나뭇가지’, ‘새까만 가지’로 연속되는 암흑의 세계는 생명성의 단절을 내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 집이/무수한/새 알”의 생명을 심어두는 것은 단절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응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부정적인 현실인식의 저변에 ‘새집’, ‘새알’, ‘움직이는 개미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생명성의 발견 혹은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화해두고 있는 것이다. 전봉건 시세계의 하강과 상승 이미지의 이중구조는 전쟁의 폐허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존재회복을 위한 열망의 한 측면이 된다. 1950년대 전봉건의

21 하현식, 「思惟와 直觀의 遠近法」, 『현대시학』(1985.3), 121쪽.

22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연대시집 ‘후기’, 111쪽.

시적 상상력은 전쟁의 모순과 폐허를 명징하게 자각하면서 이를 모더니즘 탐구의 원천으로 수렴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현실인식은 우선 6·25체험과 그 체험이 남긴 폐허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피란길’의 어둠과 절망을 ‘돌각담’을 쌓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표상하거나(김종삼), “薔薇의 눈시울이/가시를 배알은 가장/慘酷 했던 달//六月”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나(김광림), ‘銃殺’, ‘彈痕’, ‘砲彈’의 살상 이미지 속에 각인된 비판적 현실인식(전봉건) 등이 그 중심에 놓인다. 세 시인은 전쟁체험의 비극성을 표상하면서도 한탄이나 감정과잉의 직접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간접형식으로 내면화하면서 시적긴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을 노래하면서도 단지 전쟁시에 함몰되지 않고, 절제된 기법과 미학적 표현을 통해 모더니즘적 생동감을 확보하고 있다.

2. 죽음체험의 내면화와 단절의식

“모더니스트들은 시를 쓰는 그 詩作態度부터가 在來의 시인들의 그것과 判異하다. 즉 이들은 과거에 쓰여져 내려온 모든 시에 대하여 反動하고 反抗한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시의 技術부터 顛覆해버린다.”²³ 1950년대 모더니즘 시는 해방과 전쟁을 지나오면서 전통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문학에의 욕구, 전후극복이라는 명제를 안고 있다.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모더니즘 시작(詩作) 또한 ‘反動’과 ‘抵抗’, ‘技術’의 ‘顛覆’ 등을 배경에 두고 치열한 실험적 탐구과정을 지나온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 시인 모두 각자의 개성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동시대적

23 장만영, 「現代詩의 難解: 모더니즘考」, 《동아일보》, 1958년 6월 8일자.

체험을 공유하고 이를 시적 원료로 수용하면서도 모더니즘적 기법에 있어서는 선명한 차이성을 드러낸다.

김중삼의 시적특징은 의미와 형식에 걸쳐 다양한 진폭으로 나타난다. 부채를 동반하는 의미구도, 의도적으로 비워놓거나 생략하는 ‘공백/생략’²⁴의 기법, 시적 ‘절제’²⁵의 특성들이 여기에 놓인다. 김중삼의 이러한 시적특징은 등단시기부터 이미 암시되고 있다. 그는 1953년 종합잡지 『신세계』에 등단하기 전, 『문예』지를 통해 먼저 등단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꽃과 이슬을 노해하지 않았고”, 시가 “난해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다. “꽃과 이슬을 노해하지 않음, 시의 ‘난해함’ 등은 시인의 개인적 성향도 성향이지만, 더 크게 모더니즘적 특성을 반영하는 일정 지점이 될 것이다. 서정적 요소를 배제한 의식적 시작(詩作)의 경우 시의 난해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김중삼은 때 묻은 언어, 낡아버린 언어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두고 “새로운 境地로서의 새로운 詩의 言語”²⁶를 찾기 위해 주력한다. 이러한 김중삼의 모더니즘 시작은 초기에서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모더니즘 시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된다.

김광림의 모더니즘 시작은 김중삼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 변화를 보이면서 그 특징적 배경을 구성한다. 앞서 이근청이 김광림의 시세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 모더니즘의 활동시기를 언급했듯이²⁷, 문덕수

24 김성조, 「김중삼 시의 ‘공백/생략’에 나타난 의미적 불확실성과 도피성」, 『한국언어문화』 제53집(2014), 80쪽.

25 김현, 「金宗三을 찾아서」, 『김중삼전집』(청하, 1988), 237쪽. 김현은 김중삼의 시적 절제에 대해, “그의 유년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그의 초기시편들이나 그가 성인이 되어 겪게 된 비극적인 체험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후기 시편들이나, 그것들은 다 같이 절제라는 미덕을 갖고 있었다. 그 절제를 통해 그의 시의 설화성은 그 산문적 성격을 극복한다”라고 설명한다.

26 김중삼, 「의미의 백서」, 『김중삼전집』(청하, 1988), 229쪽.

27 각주 21) 참조.

또한 세 측면으로 나누어 그 변화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김광림은 “자연 발생적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방법’에 의해 시를 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모더니스트다”²⁸라는 설명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는 초기에 이미지의 조형에 주력했으나 뒤로 갈수록 그의 의식적 방법은 지성(intelligence)을 중시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그를 “주지주의 계열의 시인”으로 분류한다. 셋째, “그의 주지주의는 유머, 위트, 아이러니 등의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끝을 맺는다. 정리해보면, 김광림의 시는 모더니즘 시에서 출발하여 이후 주지주의 경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의 시기는 그 첫 단계로써 모더니즘 시의 출발지점이고, 이후 1960년대까지 모더니스트로서의 시적행보를 이어간다.

전봉건의 경우, 김중삼과 마찬가지로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시적실험을 견지하면서 모더니즘 시의 진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의 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생략과 반복, 이미지의 병치적 연결, 영화적 기법, 숫자나 알파벳 사용 등은 강한 실험성을 동반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건의 “미적 인식의 기준이 전통적인 분위기에 닿아 있기보다는 현대적 감각을 노정하는 데서 국어의 새로운 발견과 실험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를 감지”²⁹할 수 있다. 전봉건은 이러한 시적배경에 대해, “한 시인이 한 편의 시를 통하여 비시적 언어를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훌륭하게 시로서 형상화시켰다면 비시적 언어마저도 바람직하게 시적 언어로 변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³⁰라고 말한 바 있다. 전봉건의 모더니즘 탐구는 1950년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시작으로

28 문덕수(2010), 앞의 글, 24쪽.

29 하현식, 「말과 孤節」, 『현대시학』(1988.6), 69쪽.

30 전봉건·박정만, 「나의 文學, 나의 詩作法」, 『현대문학』(1983.4), 272쪽.

해서 전 시세계에 걸쳐 활달하게 펼쳐진다. 장시(長詩)에 대한 탐구, 장시에 준하는 긴 길이의 시들, 연작시에 대한 관심도 새로운 시 양식으로서의 실험적 탐구영역이 될 것이다.

앞서 제Ⅲ장 1절에서 부정적인 현실과 세계의 상실에 대한 시적인식을 살펴보았다면, 2절에서는 죽음체험의 내면화와 단절의 세계에 집중해본다. 전쟁의 폭력성 속에는 언제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죽음'은 비단 전장(戰場)의 참사뿐 아니라, 무고한 희생으로서의 죽음, 황폐화된 공간과 정신적 공황 등 인간의 의식·무의식의 죽음공간을 두루 아우른다. 따라서 나와 세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어둡고 집요한 상흔으로 결집된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리라는 푸름이라 하였던
무계를 두어

그러나,
어느 것은 날개 쪽지만
내 젖다가 고만 두었다는 것이다.

지난 때,
죽었으리라는 茶友들이 가져온
그리고 그렇게 허름하였던 사랑……세월들이
가져온-
나날이 거기에 와 있다는
계절(晝間)들의……

또

하나의 死者라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지 않는가 —

- 김중삼, 「全鳳來」 부분

김중삼은 시력 30여 년 동안 단 세 권의 시집을 상재한 보기 드문 과작의 시인이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실린 10편의 작품에 대해서도, “김중삼의 작품은 이것이 그의 거의 전부의 작품이다”³¹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김중삼의 삶과 시적 여정은 전쟁과 분단, 실향의 상처와 깊이 접목되어 있다. 그의 시적 부재의식과 ‘비극적 세계인식’³²의 저변은 전쟁과 실향, 이후 긴 방황의 여정과 맞물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작에 있어서는, 「민간인」, 「달 뜰 때까지」, 「어둠 속에서 온 소리」 등 다수의 시편들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시적 주제화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적 기저에 그러한 경험적 시공간을 암시해두거나 짐짓 부재와 공백의 형식 속에 상징화해두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위 인용시편 「전봉래」는 특별한 배경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제 인물인 ‘전봉래’의 ‘죽음’이 형상화되어 있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전쟁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봉래’는 6·25전쟁 시 피난지 부산에서 중군작가로 활동하던 중, 1951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다. 시인 전봉건의 형이기도 한 ‘전봉래’의 죽음은 김중삼에게 6·25전쟁의 비극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체감할

31 김중삼·김광림·전봉건(1957), 앞의 책, 110쪽.

32 김현(1988), 앞의 글, 238-239쪽. 김현은 시 「園丁」에 나타난 김중삼 시의 특징을 ‘비극적 세계인식’으로 보면서, “비극적 세계인식이란 그와 세계 사이의 간극을 그가 비화해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비극적 세계인식은 세계에서의 도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세계를 열망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아픈 소리”라고 설명한다.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 따라서 “또/하나의 死者라는/전화벨이 울리고 있지 않는가”에 내포되어 있는 죽음의식은 보다 강렬하다. “또/하나의 死者”에서의 ‘또’와 ‘死者’는 ‘죽음’의 연속성이라는 참혹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때,/죽었으리라는 茶友들”, “그러나,/어느 것은 날개 쪽지만 /내 젖다가 고만 두었다는 것이다” 등에서도 ‘죽음’이 내면화되어 있다.

김중삼은 후에(1963), “그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 시단에 아직도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시적(非詩的)인 시인들의 비인간적인 생리 일반과는 절대 무관한 곳에 위치하는 준벽(峻壁)의 붕괴였으며, 육이오 동란이 지닌바 비극적인 성격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³³라고 회상한다. “비시적(非詩的)인 시인들의 비인간적인 생리 일반과는 절대 무관한 곳에 위치하는 준벽(峻壁)의 붕괴”는 당대 시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한 시단의 생리와 상반되는 ‘전봉래’의 시적 여정을 함축하고 있다. “준벽(峻壁)의 붕괴”로 표현되는 ‘전봉래’의 죽음은 “육이오 동란이 지닌바 비극적인 성격의 소산”으로 연결되면서 더 큰 비극성을 드러낸다. ‘전쟁’과 ‘죽음’의 상관관계가 명징하게 각인된다.

①

그것은 총성에 쓰러진
 꿀벌과
 또
 저렇게도
 입술이 타서
 꿀을 치던 그날의 이야기랑 더부러

33 김중삼, 「피란 때 연도年度 전봉래」, 『김중삼 전집』(나남, 2005), 294쪽.

심한 몸살 끝에
독이 빠져
죽어가는 경우다

- 김광림, 「전쟁과 꿀벌」 부분

②
그것은 빈 가슴 채우는
포도즙. 그것과도 같은
허물. 傷處가 아물기 시작할
때. 것처럼 너는
어찌지도 못하는 즐거운
향연의, 戰爭은
부형이 우는 달밤의
虐殺도 가능한가

- 김광림, 「노을이 깔릴 때」 부분

‘전쟁’과 ‘꿀벌’의 대비(①)는 그 자체로 이미 합치될 수 없는 모순성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총성’이 내포하는 폭력적 살상과 ‘꿀벌’이라는 자연적 생명성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목 「전쟁과 꿀벌」은 처음부터 상징적 배경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총성에 쓰러진/꿀벌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꿀벌’은 ‘총성’과 연결되면서 인간적 관계망 속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른바 자연물인 ‘꿀벌’이 ‘총성’에 노출됨으로써 인간적 삶의 부조리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꿀벌’은 인간존재의 상징이면서 그 위기의 현실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한 몸살 끝에/독이 빠져/죽어가는 경우다”에서의 ‘죽음’도

‘전쟁’의 ‘총성’이 던져준 결말이다. 따라서 “총성에 쓰러진/꿀벌”이 “꿀을 치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김광림은 ‘전쟁’과 자연적 사물인 ‘꿀벌’을 대비시킴으로써 극대화된 죽음체험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비극성은 “이미 한 점 찍어진 旗幅처럼 標白한/나의 목숨 한 자락을 걸어놓은 하늘”(「노을」)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旗幅처럼 標白한/나의 목숨 한 자락”에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 ‘죽음’에 봉착한 자아와 그림에도 속수무책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그것은 빈 가슴 채우는/포도즙. 그것과도 같은/허물. 傷處가 아물기 시작할 때”(②)에서의 ‘빈 가슴’, ‘허물’, ‘상처’ 등의 이미지는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자아인식의 한 측면이 된다. “戰爭은/부형이 우는 달밤의/虐殺도 가능한가”에 이르러서는 비극성의 강도가 보다 증폭된다. “부형이 우는 달밤”의 서정적 풍경과 ‘전쟁’, ‘학살’의 죽음현장이 상호 대비되면서 충격의 파장이 더 크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二月은 오고 三月은 오고
무너진 다리에 四月은 오고
江물은 흐르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눈물이었다

잃어진것은 없었다

나무와

나뭇가지마다 서리인 戰死者의
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을 위하여
樹液은 푸른 上昇을 시작하고
無人地帶의
一五五 〈마일〉의 鐵條網속에서도
새들의 노래와 꽃송이의 中心이
바라는 하늘과
푸름은 변함이 없었다
하늘과 푸름은

잃어진 것은 없었다

- 전봉건, 「江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부분

“무너진 다리에 四月은 오고”,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눈물이었다”에서의 ‘무너진 다리’와 ‘눈물’은 전쟁의 파괴와 그 결과론적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나무와/나뭇가지마다 서리인 戰死者의/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과 연결되면서 보다 깊은 갈등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戰死者의/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체험과 그 상흔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다리’, ‘눈물’, ‘전사자’, ‘검은 외마디 소리’로 표상되는 죽음체험은 “一五五 〈마일〉의 鐵條網”으로 연결되면서 보다 확장된 비극성을 내포하게 된다. “一五五 〈마일〉의 鐵條網”은 개인적 체험에서 분단비극이라는 민족적 체험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향민인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면의식을 가로지르는 가장 어두운 단절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전봉건의 시는 앞서 1절에서 살펴본 「개미를 素材로 한 하나의 詩가

쓰여지는 理由」에서도 드러나듯이, 절망적 어둠 속에서도 ‘새집’, ‘무수한 새알’의 생명성을 심어둔다. 위 시에서도 ‘전사자’의 하강 이미지에 “樹液은 푸른 上昇을 시작하고/無人地帶의/一五五 〈마일〉의 鐵條網속에서도/새들의 노래와 꽃송이의 中心”이 생성되고 있다. 이는 전쟁의 현장에도 꽃은 피고 새들은 생명을 노래한다는 전봉건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잃어진 것은 없었다”라는 반복적 표현 속에도 ‘죽음’의 폐허를 생명으로 일깨우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1950년대 전봉건의 죽음체험은 “나무와/나뭇가지마다 서리인 戰死者의/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로 결집된다. 그리고 “無人地帶의/一五五 〈마일〉의 鐵條網”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극복할 수 없는 단절의 어둠을 내장하게 된다.

3. 전후 극복의식과 자연적 생명지향

“어느 시대나 시의 내용이 먼저 달라지면서 거기에 따라 시의 형식도 불가피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리고 시의 내용을 달라지게 하는 원인은 또한 시대정신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³⁴ 1950년대의 시대정신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생성되는 비판과 반성, 죽음과 극복의 담론이 될 것이다.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의 모더니즘 시의 출발 또한 1950년대적 현실을 체감하고 그 비극성을 새로운 시적 방법론으로 극복하는 것에 터를 두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문학에의 열망과 함께 어떤 돌파구를 모색해야하는 시점에서의 문학적 탐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전쟁이 몰고 온 혼란과 폐허의 현실은 실존적 위기의식과 함께 전후극복이라는 크나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 시인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을 동시에

34 김현승, 「自己追究의 詩와 難解性」, 『문학사상』(1973.2), 163쪽.

자각하면서 새로운 문학적/현실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앞서 제Ⅲ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전쟁’과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적인 현실인식과 죽음체험의 내면화과정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생명의지의 몸짓들을 살펴볼 것이다. ‘전쟁’, ‘죽음’, ‘극복’의 과정 중 마지막 극복의 단계이다. ‘죽음’의 원천이 ‘전쟁’이라면, ‘전쟁’은 정신적/현실적 폐허와 상실을 불러들이는 요인이고, 극복은 그 다음에 오는 필연적인 행위영역이 될 것이다. “전쟁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경험인 죽음이 있고 또 그에 반해 삶의 처절한 추구가 있³⁵기 때문이다.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전후극복은 엄밀히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위에 새로운 생명성의 원천을 발견하는데 놓여있다.

뜯악과 찜뽀마루에 긴 풀이 자랐다
한 모퉁이에 자근 발자국이 나 있었다.

풀밭이 내다 보였다. 풀밭이 가끔 눕혀지는 쪽이 많았다.
웁아간다는 눈치였다.

아직
해가 머물러 있다.

- 김종삼, 「해가 머물러 있다」 전문

앞서 2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김종삼의 시세계에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시적 형상화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35 김승윤 외, 『현대 영·미 전쟁시의 이해』(L.I.E 2010), 107쪽.

에 실린 10편의 시편들³⁶ 또한 ‘괴란지’의 절망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돌각담」과, 시인 ‘전봉래’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전봉래」를 제외하고는 전쟁의 상황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재와 공백의 형식으로 세계의 상실과 단절, 부조화의 관계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극복의 몸짓 또한 구체적 색채를 띠고 부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현실적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지향의 언어를 절제된 심연 속에 상징화해두고 있다.

“뜰악과 끄뵤마루”는 그 긴밀한 움직임에 포착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다. “한 모퉁이에 자근 발자국이 나 있었다”는 내적공간에서 외부세계로의 이동을 암시한다. 이는 비록 ‘한 모퉁이’, ‘자근 발자국’이라는 소극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세계로의 이동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긴 풀이 자라 있”는 침잠의 공간에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풀밭이 내다 보였다”에서의 ‘풀밭’은 그 매개가 되는 이미지이다. 이른바 ‘자근 발자국’의 외부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면서 또한 새로운 세계를 암시한다. “풀밭이 가끔 눕히어지는 쪽이 많았다/움아간다는 눈치였다”는 ‘자근 발자국’의 이동범위가 차츰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직/해가 머물러 있다”에서 이러한 행보를 희망적으로 이끌고 있다. ‘아직’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적 배경이 된다. 상승 이미지인 ‘해’의 “머물러 있”음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뜰악과 끄뵤마루”에서 촉발된 김종삼의 외부이동은 ‘자근 발자국’, ‘풀밭’, ‘해’ 등의 이미지를 통해 그 구체적 지향과 방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지향적 방향성은 제목

36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실린 김종삼의 작품은 「그리운 안니·로·리」, 「G·마이 나」, 「돌각담」, 「뽕죽집이 바라보이는」, 「원정」, 「해가 머물러 있다」, 「전봉래」,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어디메 있을 너」, 「개똥이」 등 10편이다.

「해가 머물러 있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의 상승구도에 닿아있다. 따라서 밝고 긍정적인 세계로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 ‘해’는 부재와 단절, 부조화의 상황을 벗어나 ‘죽음’을 생명으로,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을 추동하는 ‘풀밭’의 생명성을 생성하고 있다.

1.

神도 機械도 이미 떠나가 버린

다음에 오는 것

미움이 오히려 착하게

앞서는 午後

따끈히 마신 燒酒같이

醉해 오는 것

2.

내가 즐려운 것은

한 폭썸의 별살과 풀밭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일 수 있었던

그 어느 날에는

어떻게 꽃버섯처럼

자꾸 돌아날 수만 없기 때문이다

- 김광림, 「별」 부분

김광림의 전후극복은 “神도 機械도 이미 떠나가 버린/다음에 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에 오는 것”의 배경에는 많은 의미적 진폭이 수반되어 있다. 이는 전쟁의 참혹성 뒤에 이어지는 결과론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神’도 어찌할 수 없는 ‘기계’의 살상과 죽음의 암흑 뒤에 오는 폐허의 상황이 그것이다. 따라서 “미움이 오히려 착하게/앞서는 午後”는 폐허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는 역설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미움’과 ‘착하게’ 사이에는 ‘오히려’로 설명되는 긴 곡절의 시간이 내장되어 있다. 김광림은 “따끈히 마신 燒酒같이/醉해 오는 것”으로 그러한 정황에 대한 고통을 짐짓 절제하고 있다. “내가 즐려운 것은/한 폭썸의 별살과 풀밭이//아직은/남아있기 때문이다”의 배경 또한 이와 연장 선상에서 생성되는 심리적 반응이다. “취해 오는 것”, “즐려운 것”은 참혹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 혹은 무력감의 표현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비로소 안착하게 되는 평화와 그러한 염원이 담겨있는 안도감이 될 것이다. 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별살’과 ‘풀밭’이다. “한 폭썸의 별살과 풀밭”은 “아직은/남아있기 때문이다”와 연결되면서 희망적 가능성을 열어 준다. “별살과 풀밭”은 ‘미움’을 정화시켜주는 자연적 생명력이면서 “내가 사람일 수 있었던/그 어느 날”의 복원 혹은 회귀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통로는 “이제는 고쳐갈 수 없는/나의 하루,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老姑山 종점」), “아름다움은 버릴써 우리의 것이/아니다”(「꽃과 잃어버린 神」)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 체득하게 되는 길이다. 따라서 보다 절실한 자기극복의 색채를 띠게 된다. 김광림의 전후극복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상실했던 자아와 일상을 회복하는데 놓여있다. 제목 「별」은 상승 이미지로 서의 그 상징적 배경이 된다.

薔薇는 나에게도

피었느냐고 당신의
편지가 왔을 때
五月에……나는 보았다 彈痕에 이슬이 아롱지었다

그리고
빛나는 太陽
흙은 헤치었다

무수한 자욱 무수한 자욱 무수한
軍靴자욱을 헤치며 흙은
綠色을
새 樹木과 꽃과 새들의 綠色을 키우고

그
가장자리엔 구름이 있었다
구름이……

- 전봉건, 「薔薇의 意味」 부분

위 시에서 ‘장미’는 생명이면서 또한 죽음체험의 상징적 표상이 된다. 꽃 이미지 속에는 1950년대적 어둠과 비극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五月’의 ‘장미’는 충만한 생명력과 절정의 환희를 담고 있어야함에도 “彈痕에 이슬이 아롱지었다”로 표상되고 있다. “무수한 자욱 무수한 자욱 무수한/軍靴자욱을 헤치며”에서의 ‘軍靴자욱’은 ‘전쟁’의 ‘彈痕’을 내장하고 있다. ‘당신’과 ‘나’는 ‘탄흔’, “무수한/軍靴자욱”의 어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薔薇는 나에게도/피었느냐고” 묻는 ‘편지’는 1950년대적 비극성을 공유하는 매개물이다. 이런 점에서 “장미는 나에게도

「피었느냐고」에서의 ‘핀다’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핀다’는 상승의 기류를 함유하는 것으로, ‘彈痕’과 “무수한/軍靴자욱”을 거쳐 “빛나는 太陽/흙은 헤치었다”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綠色을/새 樹木과 꽃과 새들의 綠色을 키우고”의 터전을 생성하게 된다. ‘태양’과 ‘흙’은 “새 樹木과 꽃과 새들의 綠色을 키우”는 원천적 생명력이다.

전봉건의 전후극복은 “어느 아침 필/해바라기의 이슬일까-나의/눈시울의 무수한 탄흔을/씻으며”(「은하를 주제로 한 <바리아시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그러나 목숨을 걸어 太陽을 향한/아름다운 旗빨이다”(「지금 아름다운 꽃들의 意味」)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太陽을 향한/아름다운 旗빨”은 사랑과 희망, 생명의지를 표상한다. 전봉건은 ‘죽음’의 언저리에 ‘태양’과 ‘흙’, “綠色을 키우”는 생명의지를 심어둠으로써 전후극복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많은 시인들이 분단의식을 노래하되 상투적 이데올로기나 감상적 구호의 차원에서 맴돌 때 그는 시적 형상화를 통하여 6·25 체험을 새롭게 극복”³⁷하고 있다. 하강과 상승 등 다양한 이미지의 변용과 개성적인 시적 기법의 활용은 생명성의 신뢰를 회복하는 원천이 된다. ‘죽음’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폐허를 딛고 다시 상실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그 중심이 놓여있다.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시의식 속에는 참혹한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과 전후극복의 과제가 투영되어 있다. ‘전쟁’과 ‘죽음’의 폐허, 인간상실의 위기의식을 본래적 생명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적 생명지향의 언어는 치유와 극복의 방법론이 된다. “풀밭이 내다보였다”(김종삼), “한 폭썸의 별살과 풀밭이//아직은/남아있기 때문이다”(김광림), “흙은/綠色을/새 樹木과 꽃과 새들의 綠色을 키우고”(전봉건)

37 이승훈, 「6·25 체험의 시적극복」, 『문학사상』(1988.8), 267쪽.

등의 시적 상상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파괴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자연은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삶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성의 근원이 된다. 세 시인이 자연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의지를 발현해가고자 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자연적 숭고의 숨결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풀밭’, ‘별살’, ‘흙’은 그 극복매개가 되는 이미지들이다.

IV. 맺음말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의 문학적 출발시점인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상실의식이 팽배하던 시기이다. 1950년대 모더니즘 시는 해방의 기쁨과 혼란, 민족상잔의 피 흘림의 시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적 수난에 대한 각성과 비판, 새로운 문학에의 욕구, 전후극복이라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른바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해야하는 시점에서의 문학적 탐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세 시인의 모더니즘 시작(詩作)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 첫발을 내딛고 있다. 1957년에 출간한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의 연대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1950년대적 담론과 문학적 연대의식을 결집하여 출간한 시집이다. 따라서 1950년대 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응집되어 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이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적 체험, 모더니즘적 경향, 개인적 상처 등은 1950년대라는 역사적/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다. 이른바 1950년대적 상황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만의 특징적 관계성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 시인의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6·25체험은

“광막한 지대”, “포복처럼 느릿한 155마일 휴전선”, “탄흔을 밟고/포연을 헤치는” 등으로 상징화된다. “또/하나의 死者”, “부형이 우는 달밤의/虐殺”, “나뭇가지마다 서리인 戰死者의/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은 전쟁의 참상이 야기한 죽음체험의 표상들이다. ‘전쟁’과 ‘죽음’은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가로지르는 중심기제이면서 정신적/현실적 단절과 폐허를 불러들이는 가장 집요한 상흔이 된다. ‘연대책임’의 일환으로 극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는 것도 여기에 있다.

자연적 생명성에 기대어 전후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 시인의 특징적 방법론이 된다. ‘풀밭’, ‘별살과 풀밭’, “綠色을/새 樹木과 꽃과 새들의 綠色을 키우”는 ‘흙’의 생명력이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한다. 세 시인의 자연적 생명지향은 인간에 의해 파괴된 생명성의 존엄을 본래적 습격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자연적 이미지는 전쟁의 파괴와 상처를 상쇄시키는 밝고 긍정적인 자연 그대로의 질서와 생명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적사유에는 문명의 이기와 폭력적 파괴에 대한 강한 회의와 환멸이 담겨있다. 인간은 파괴를 자행하지만 자연은 그 파괴의 흔적까지도 치유의 손길로 쓰다듬는다. 자연적 숭고와 생명성을 통해 죽음과 폐허의 어둠을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절실한 열망이 될 것이다.

김중삼·김광림·전봉건은 1950년대적 비극성을 외면하거나 표피적으로 스쳐가지 않고, 비판적으로 자각하면서 이를 모더니즘적 탐구영역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폐허를 한탄과 직접토로의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거리를 두고 간접형식으로 내면화하면서 시의 미학을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기법의 실험과 언어에 대한 각별한 인식, 이미지의 미학적 활용을 통해 각각의 개성적 시세계를 펼치면서 전쟁시의 한계를 탈피하고 있다. 당대 현실을 강타한 ‘전쟁’을 중심에 두면서도 이를 모더니즘적 미학

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전쟁’과 ‘죽음’과 ‘극복’은 그 하나로 이미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한 지형을 형성하는 개성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은 각자의 시세계를 성공적으로 펼쳐간 시인들이다.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는 그 출발지점이면서 모더니즘 시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의의를 생성하는 지점이 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중삼·김광림·전봉건,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자유세계사, 1957.

2. 단행본

김승윤 외, 『현대 영·미 전쟁시의 이해』. L.I.E, 2010.

김춘수,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지성사, 1976.

송기한, 『한국 전후시와 시간의식』. 태학사, 1996.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1.

이남호, 「1950년대와 전후세대 시인들의 성격」,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천이두, 「50년대 문학의 재조명」, 『한국비평문학대계』. 동양서적, 1994.

홍기삼, 「전쟁 그리고 문화의 수면」. 『상황문학론』, 동아출판공사, 1974.

3. 논문

김성조, 「김중삼 시의 '공백/생략'에 나타난 의미적 불확실성과 도피성」. 『한국언어문화』 제53집, 2014, 79-105쪽.

김영태, 「음악의 배경: 김중삼론」. 시문학, 1972. 8, 31-37쪽.

김중삼, 「의미의 백서」. 『김중삼전집』, 청하, 1988, 228-230쪽.

_____, 「피란길」. 『김중삼전집』, 나남, 2005, 305-306쪽.

_____, 「피란 때 연도年度」. 『김중삼전집』, 나남, 2005, 293-295쪽.

김현, 「김중삼을 찾아서」. 『김중삼전집』, 청하, 1988, 235-243쪽.

김현승, 「自己追究의 詩와 難解性」. 『문학사상』, 1973. 2, 160-167쪽.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김수영·김중삼 시의 시간의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류순태,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문덕수, 「김광림론: 그의 주지적 방법을 중심으로」. 『김광림시전집』, 바움커뮤니케이션, 2010, 17-24쪽.

문혜원, 『한국 전후시의 실존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박윤우,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부정성의 형태와 양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오형엽,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009, 51-77쪽.
- 우남희, 「1950년대 ‘후반기’ 동인과 『신시학』의 연관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4집, 2019, 103-127쪽.
- 윤정룡,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건청, 「김광림의 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4집, 2003, 331-350쪽.
- 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전집』, 청하, 1988, 259-269쪽.
- 이광수,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승훈, 「6·25체험의 시적극복. 『문학사상』, 1988. 8, 257-269쪽.
- 李活, 「시집詩集 戰爭과 音樂과 希望과. 《경향신문》, 1957년 7월 17일자.
- 장만영, 「現代詩의 難解-모더니즘考. 《동아일보》, 1958년 6월 8일자.
- 전봉건·박정만, 「나의 文學 나의 詩作法. 『현대문학』, 1983. 4, 271-281쪽.
- 하현식, 「사유와 직관의 원근법. 『현대시학』, 1985. 3, 119-132쪽.
- _____, 「말과 孤節. 『현대시학』, 1988. 6, 68-76쪽.
- 한명희,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서정성. 『한국시학연구』 제16호, 2006, 25-47쪽.
- 홍승희, 「김종삼 초기 시의 주체: 타자 관계양상 연구-『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2호, 2018, 163-195쪽.
-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전집』, 청하, 1988, 244-258쪽.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50년대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초기 모더니즘 시의 개성적 색채와 전후극복의 논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세 시인이 전쟁의 폐허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가는 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57년에 출간한 김종삼·김광림·전봉건의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는 전쟁의 폐허에 대한 명징한 인식, 비판과 반성, 현실대응으로서의 전후 극복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세 시인의 문학적 출발시점인 1950년대는 민족상잔의 전쟁과 그로 인한 실존적 위기, 폐허의식이 팽배하던 시기이고, 세 시인의 모더니즘 시의 탐구도 그 영향권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전쟁’, ‘죽음’, ‘극복’의 구도는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가로지르는 중심체계이다. 이는 전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죽음체험과 폐허의식, 파괴된 생명성의 복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결부된다. 전쟁의 부조리성에 대한 비판, 단절된 세계를 본래적 생명성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치유와 극복의 상상력이 여기에 있다. 자연적 생명지향은 파괴된 생명성과 상실한 자아회복의 원천이 된다. 세 시인의 경우,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 기법의 실험, 상흔의 내면화를 통해 미학적 극복을 의도한다. 이러한 특징이 곧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한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시적 위치를 마련하게 한다.

투고일 2021. 2. 24.

심사일 2021. 2. 25.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1950년대 모더니즘 시(Modernism Poems in 1950s), 죽음체험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Death Experience), 전후 극복의식(Consciousness of Overcoming the Postwar Period), 자연적 생명지향(Natural Life Orientation), 미학적 극복(Aesthetic Overcoming).

Abstract

The Topography of Modernism Poetry in 1950s and the Consciousness of Overcoming Postwar-Focusing on *War and Music and Hope*

Kim, Sung-j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unique color of early modernism poems of Kim Jong-sam, Kim Kwang-rim and Jeon Bong-gun in the 1950s and the logic of overcoming postwar times. This is the process of finding questions and answers about how the three poets recognize and overcome the ruins of war. Kim Jong-sam, Kim Kwang-rim, and Jeon Bong-gun's "War and Music and Hope", published in 1957, internalized the clear awareness of the ruins of war, criticism and reflec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overcoming the war as a reality response. The 1950s, the starting point of the literature of the three poets, was the period when the war of the nation, the existential crisis and the ruin consciousness were widespread, and the exploration of the modernist poetry of the three poets was also expressed in the influence.

The composition of 'war', 'death' and 'overcoming' is the central system that crosses the "war and music and hope". This is associated with a more concrete sense of problem: criticism of war ideology, death experience, ruin consciousness, and restoration of destroyed life. This is the criticism of the absurdity of war, the imagination of healing and overcoming to restore the disconnected world to its original life. Natural life orientation is the source of destroyed life and lost self-recovery. In the case of three poets, aesthetic overcoming is intended through the use of various images, experiment of techniques, and internalization of scars. This feature soon provides a poetic position to build a terrain of modernist poetry in the 1950s.